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T. 02-500-1915 / F. 02-503-7905

월간 식품정책

2012 11 월호

식품산업정책과

2013년 국회제출 식품산업 정부예산(안)

인프라 구축 ·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편성액은 총 15조 4,102억원이다. 이 중에서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은 9,411억원으로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품분야 예산은 인프라 구축,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보호 등 4대 분야로 구분된다. 내년도 예산은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수출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공사 본격화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의 하나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내년부터 조성공사가 본격화 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조성하기 위해 패키징센터, 품질안전센터, 기능성평가센터, 파일럿플랜트, 임대형공장, 클러스터지원센터 등 6개 시설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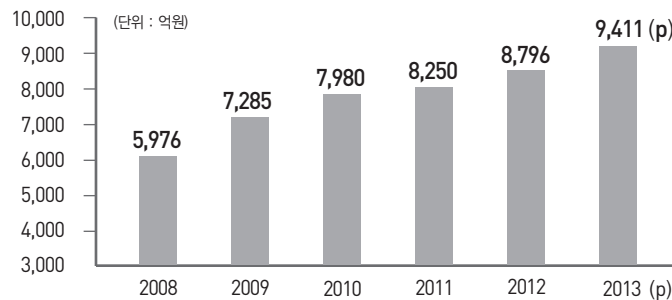
이를 위해 총 건축비 중 국고 부담부분의 30%에 해당하는 99억원 등 총 134억원이 예산에 편성됐다. (02-500-1923)

◆ 식품산업 정책 분야별 예산안

정책 분야	2013년도 예산안(억원)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1,397
식품산업과 농어업 연계강화	1,381
글로벌 경쟁력 제고	6,563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433*

*소비안전 정책분야 예산안 포함

◆ 연도별 식품산업 예산



농식품 수출 및 홍보예산 확대

분야별로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수출선도조직 육성 및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 등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총 6,113억원으로 2012년 예산 5,760억원에 비해 353억원 증가했다.

외식분야 창업 · 경영교육 실시

내년도부터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시작하고, 농공상 융합형 식품 기업 지원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외식산업은 생계형 업체가 대부분이고 창폐업이 빈번한 점을 감안해 창업 · 경영 교육 등을 위한 예산 9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관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내년 3월경 실시할 공모에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내년 2월경 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02-500-1964)

농공상 융합형 기업 지원 강화

현재 전국적으로 농공상 융합형 식품기업 197개소가 선정돼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존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융자자금 172억원 이외에 경영실태 조사, 판로확보 및 파일럿사업 운영 지원에 필요한 예산 6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02-500-1920)

천일염 산업 중점 육성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염전시설 개선, 이력관리제 도입, 페슬레이트 처리에 필요한 예산 22억원, 김수출협의회공동마케팅 지원 등 수산물 분야 수출 유망품목 육성을 위한 예산 5억원을 반영했다.

정부 예산안은 현재 국회 심의를 받고 있으며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지면안내

- 02 소금산업진흥법 시행 천일염 위생 · 안전 강화
- 03 농식품부 · aT 발표 '외식업경기지수' 외식경영주체 의사결정에 '효과적'
- 04 카라활용 홍보스티커 지원대상 모집 중국 유제품시장 성장 가속화

- 05 수출 인프라 강화사업 개편 추진 aT · 대한항공, 신선농산물 수출 협력
- 06 유럽 선도기업대상 투자유치 본격화 중국시장 진출 전초기지 역할 관심
- 07 2012 SIAL박람회 참가 한국식품 세계진출 가능성 충분
- 08 11월 주요행사 캘린더 주요공모사업 안내

천일염산업 체계적 육성위해 소금산업진흥법 시행 천일염 위생·안전 강화

소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한 소금산업진흥법이 본격 시행돼 건전한 소금 유통과 판매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소금관련 법령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3월 소금을 광물에서 식품으로 분류하고, 이듬해 소관부처를 지식경제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해 천일염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염관리법이 염제조업 허가, 품질검사 등으로 제한돼 체계적인 소금산업 육성에 는 미흡했던 점을 감안, 지난해 11월 22일 소금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천일염 인증제도 규정

또한 소금산업진흥법은 천일염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식용 천일염 생산에 사용



▲ 농식품부는 염전 시설기준을 강화해 염전에서 슬레이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천일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기구·자재 등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식용천일염 생산금지해역 지정과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행위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천일염 품질고급화를 위해 생산한 천일염에 대한 천일염 인증제도(우수천일염 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염전 시설기준 강화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령을 개정, 염전 시설 기준을 강화해 염전에서 슬레이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허가를 받은 업체도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천일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천일염인프라 확충, 위생·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해 우리 천일염을 프랑스

게랑드 소금이나 이탈리아 코마치오 소금과 더불어 세계 3대 명품소금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02-500-1948) 

최고의 전통주 뽑는 '우리술 품평회' 개최

32점 입상작 선발

전통주 경쟁력 강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가 지난달 26~27일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우리술 품평회 행사는 이날 지난 8월부터 16개 시·도별 지역예심과 현장심사를 거친 전통주를 대상으로 본심사를 실시해 8개 주종별로 총 32점의 입상작을 선발했으며 시민 200여명이 직접 참여해 선호하는 전통주 선발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각 부문별 대상에는 '산천어막걸리' (생막걸리, (주)화천주가), '하얀연꽃백련막걸리' (살균막걸리, 신평양조장), '대통주' (약주, 우리술), '추사에플와인' (과실주, 예산사과와인(주)), '명인안동소주' (증류식소주, 명인안동

소주), '병영설성사또' (일반증류주, 병영주조장), '산내올오미자주' (리큐르, 거창사과원에 농협), '허니와인' (기타주류,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품평회에서는 외국인(미국·일본·중국)을 대상으로 한 '전통주 선발전'도 함께 진행했다. 미국인의 경우는 선호가 다양했지만 그 중 특히 허니와인(기타주류)를 선호했으며, 저도주를 선호하는 일본인의 경우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구입하고 싶은 술로는 허니와인(기타주류)를 선택했다.

중국인의 경우는 중국음식과 잘 어울리는 증류식소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대부분 막걸리 자체는 선호하지만 페트병 제품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 향후 막걸리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용기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외국인 대상 품평회 결과를 반영해 전통주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면세점 등에서도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채택해 판매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입상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점·대형마트 입점 추진, 국제주류품평회 참가지원, 언론 등을 통한 홍보 지원과 시설현대화자금 우선융자, 컨설팅사업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해 세계 명품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02-500-1952) 

월간 식품정책

은 농식품 기업, 식품관련 대학 및 연구소, 협회, 단체 등 유관 기관에 무료로 배포되는 정보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월간 식품정책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mifaff.go.kr

농식품부 · aT 발표 '외식업경기지수'

외식경영주체 의사결정에 '효과적'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11년부터 개발, 발표하고 있는 '외식업경기지수(KRBI : Korea Restaurant Business Index)'가 외식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은 2010년 기준 매출액 67조 5,000억원(국가 전체 산업의 1.6%), 종사자 161만명(국가 전체 공용의 9.1%)에 달하는 거대 산업이나 이와 관련된 정보나 통계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외식산업과 관련된 정부통계는 거시적 경제관점에서만 작성되고, 연 1회 발표되는 등 내용과 시기의 문제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외식산업 현황 확인, 의사결정 도움

이에 따라 이를 분기별로 조사·발표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KRBI이다. KRBI란 외식산업 매출의 성장과 위축정도를 지수

화 한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100초과는 성장, 100미만은 위축을 의미한다.

또한 전년동분기 대비 현재상태를 나타내는 '현재지수'와 전년동분기대비 3개월 후 전망을 나타내는 '미래지수'로 구성돼 있다. 조사는 3,000여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항목별로 지수를 산출, 이를 통해 외식산업 현황을 확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3분기 결과 이달 중 발표

실제로 2012년 3분기 전체 KRBI 현재 지수는 71.22로 2011년 3분기에 비해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외식업체 수가 더 많아 경기에 민감한 외식산업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유흥 주점업은 53.85로 다른 업종에 비해 더 어려운 상태를 나타낸다.

현재 KRBI는 2011년 2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결과가 나와 있으며 KRBI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산업통계정보(fis.food-

◆ 2012년 3분기 KRBI 조사결과

(업종별 현재지수를 중심으로)

업종 분류	세부업종 분류	외식업 경기지수
한식 음식점업	일반한식 전문점	74.58
	한정식 전문점	70.83
	면류 전문점	70.89
	육류	소·돼지 71.22
	구이전문점	닭·오리 73.97
		기타 58.33
	국, 탕, 전골 및 찌개류 전문점	72.17
	해산물류 전문점	72.43
	기타(기본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한식당)	71.11
	중국 음식점업	68.49
기타 음식점업	일본 음식점업	71.15
	서양 음식점업	75.00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
	기관구내식당업	-
	출장음식서비스업	-
	이동 음식점업	-
	제과점업	76.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76.67
	치킨 전문점	69.18
	분식 및 김밥 전문점	70.26
	그 외 기타 음식점업	70.63
	일반유흥 주점업	53.85
	무도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67.69
	비알콜 음료점업	73.75
	전체	71.22

* 자세한 정보는 fis.foodkorea.co.kr의 '식품산업조사정보'에 게시

inkorea.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500-1964)

평창군 '효석문화메밀마을' · 안산시 '댕이골'

우수 외식업지구 선정...공동마케팅 · 홍보비 지원

강원도 평창군 '효석문화메밀마을'과 경기도 안산시 '댕이골'이 '우수 외식업지구'로 선정됐다.

이효석 선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효석문화메밀마을'은 매년 9월이 되면 메밀꽃이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는데 이런 문화적·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 효석문화제, 효석문학 100리길(산책로), 효석문화관 등 풍부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메밀꽃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 지역 60여 개의 외식업체들은 지역 특산물인

메밀을 활용한 다양한 웰빙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식품 발굴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신메뉴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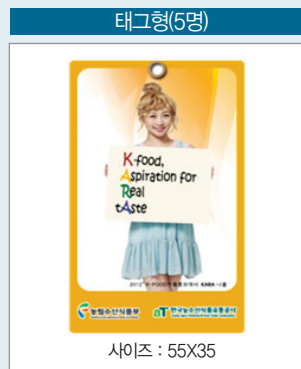
또한 이 지역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인접해 동계올림픽 개최기간 동안 내·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지구 활성화 및 환경개선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경기도 안산시 '댕이골'은 한국전통음식을 주 메뉴로 하는 외식업체들이 모여 20년전부터 음식거리가 조성됐으며 2005년에 경기도로부터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됐다. 안산시는 '댕이골 전통음식문화축제'

등을 통해 전통음식거리로서의 특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나 경기도 안산이 고향인 성호 이익 선생은 "가난한 백성이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콩뿐"이라며, 콩을 사용한 소박한 식습관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점에 착안해 가칭 '삼두(三豆)밥상(콩죽, 콩장, 콩나물)'을 개발하여 '댕이골' 외식업체에 제공·보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곳의 외식업지구에 교육, 경영개선, 공동마케팅·홍보비 등 2년간 4억원(국비 2억, 지방비 2억)의 예산을 지원해 특색과 품격을 갖춘 선진 외식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전주 한옥마을, 대구 들안길 먹거리타운, 함양 건강 100세지구가 '우수 외식업지구'로 선정됐다.



카리활용 홍보스티커 지원대상 업체 모집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식품 수출촉진을 위해 스타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부터 농식품 수출 홍보대사인 카라 홍보 스티커를 수출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2011~2012년 박람회 참가,

해외 판촉행사, 물류비, 상품화 사업 등에 대해 유통공사를 통해 지원 받은 실적이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로 선정 절차를 거쳐 사용권을 부여 받으면 자사 수출 제품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홍보스티커는 정부 지원 박람회 참가 · 판

※ 2차 신청접수 : 2012.11.1~8 (계시판 <http://album.agrotrade.net/sticker>으로 신청)

※ 라운드, 입체형, 태그형 3종류를 카라 멤버 5명의 지정 색깔별로 제작돼 총 15종의 디자인 중 업체 자유 선택

촉 행사시에는 물론 유통 매장내 상품 진열시에도 사용할 수 있어 한류 스타를 활용한 소비자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로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3일 1차로 20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매월 초 신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스티커 사용권 유효기간은 2013년 9월까지이다. (문의 02-6300-1672)

해외동향

소득증가·도시화·냉장가전 사용 증가로 중국 유제품시장 성장 가속화



중국 유제품 분야의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소득 증가, 도시화 확산, 냉장가전제품 사용 증가 및 유제품류 섭취로 인한 건강 증진에 대한 인식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11/12 우유 생산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3,210만톤, 버터와 치즈 생산은 각각 2.3%, 2.4% 늘어나 11만 2,000톤과 29만 1,000톤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유제품 수요도 제품 가격 상승, '08년 멜라닌 파동,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되어 액상우유(Fluid Milk) 소비는 올해 전년 대비 6% 상승한 1,4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경제성장과 도시화 확산에 힘입어 '16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이를 반영하듯 중국 정부에서도 유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소 사료 품질개선을 위해 12억 위안(미화 3억3,330만달러)을 할당해 우수 사료작물(알팔파, 유럽산 콩과 식품) 생산 증대 계획을 발표하고 소 보험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정책적으로 자국 유제품 시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유제품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20대 유제품 기업 중 15개 기업이 중국을 대상으로 제조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2012 부산국제수산물무역EXPO 개최

전세계 20개국 참여 국내최대 수산종합박람회

국내 최대 수산종합전문 박람회 '부산국제수산물무역 EXPO'가 벡스코(BEXCO)와 한국수산물협회 공동 주관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세계 20개국 350업체 700부스 규모로 개최돼 중국 국제어업박람회 및 도쿄 수산박람회와 더불어 극동지역 3대 국제 수산전문박람회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품목별로 '씨푸드관', '수산기자재관', '해양 바이오관'을 구성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제품 홍보관', '양식산업 특별관', '수산가공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특별관'을 주제별 테마관으로 구성·운영했다. 또한 전시기간에는 해외바이어를 초청, 대규모 수출 상담회도 함께 진행했으며, 부대행사로는 수산 ODA(공적개발원조) 국제심포지엄, 부산시 시어(市魚) 지정 간고 등어 판매행사 등이 열렸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수산물박람회 홈페이지 (www.bisfe.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전화(051-740-7518, 7520)이나 이메일(bisfe@bexco.co.kr)로 문의하면 된다.

수출 인프라 강화사업 개편 추진

지원대상 확대로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농림수산물부가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개선에 나섰다. 기존 세부 사업내역의 복잡성, 지원대상 한정 등의 문제를 해결해 더 많은 수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12개 세부사업 운용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은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통한 농식품 산업 육성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크게 물류비 지원과 인프라 강화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편대상인 인프라 강화 사업은 현재 수출기반조성, 안전성 관리 2개 분야에서 12개 세부사업이 운용되고 있다.

지원대상 확대방안 고려

농식품부는 '13년부터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규격·인증 등록 지원, 고품질 샘플제공비 지원 등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기존 지원조건인 '농식품 물류비 지원대상 업체'에서 '농식품 수출업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환변동보험과 농수산물수출보험 가입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해외규격인증등록지원은 수출 농식품 해외인증제도 등록 시 소요비용을 업체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50%를 지원한다. 바이어 대상 샘플제공상품의 운송·통관비를 지원해주는 고품질 샘플제공비 지원사업은 업체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사업운용에 반영

세부 사업내역은 검토를 거쳐 2013년 사업운용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의견은 농식품부 수출진흥팀(02-500-1957~8), 사업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팀(02-6300-135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aT·대한항공 MOU, 신선농산물 수출 '탄력'

항공운송비 25%가량 절감

신선농산물 항공운송비가 25%가량 절감돼 고품질 신선농산물 수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5일 aT센터 3층 회의실에서 대한항공과 수출 신선농산물 항공운송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으로 딸기, 화훼류 등 신선농산물 항공운송비가 kg당

3500~4000원 수준에서 3000원으로 17%에서 최대 25%까지 인하되며 내년부터는 유럽, 중동 등 지역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물부는 신선농산물의 해외 장거리 지역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물부 수출진흥팀(02-500-1957)이나 aT 농산수출팀(02-6300-145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수출업체 웹페이지(사진 왼쪽)와 바이어 웹페이지(사진 오른쪽)

농식품 수출 정보시스템 개편 시범 운용

수출업체·바이어로 분류...맞춤정보 제공

www.kati.net

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 '카티넷'이 지난달 31일 개편돼 시범 운영되고 있다.

개편된 정보시스템은 주요 사용자를 수출업체와 바이어로 분류해 수출업체에는 해외시장정보, 수출안전정보, 수출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바이어에는 수출 상품·업체 정보 등을 제공하는 웹구성을 선보였다.

특히 안전한 수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된 관계기관 보유 정보를 통합해 수출국 검역 제도·농약안전 및

식품 첨가물 사용 지침을 일괄 제공하고 한국산 농식품의 통관거부사례 등의 정보를 신규로 추가했다.

아울러 기존 정기 발간물 통권 PDF화 일로 제공하던 시장동향, 통관·검역 등 수입제도를 품목과 국가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요자 편의 중심의 정보 환경으로 개편했다. 또한 사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시험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사용 관련 건의사항은 식품수출정보팀(02-6300-1403)을 통해 접수받으며 정상운영은 오는 12월 9일부터이다.

해외 선도기업 대상 투자유치 본격화 중국시장 진출 전초기지 역할 관심

해외 우수 식품기업들의 관심 속에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은 지난달

17~26일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등을 방문했다. 추진팀은 다논, 벨그루프, 봉그랑, 퓨라토스 등 우수 식품기업들을 방문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고 프랑스 SIAL 박람회에 투자유치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에 관심

봉그랑그룹 알렉스 봉그랑 회장은 직접 면담에 나서 “중국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과 한국 치즈소비량 증가를 눈여겨보고 있다”며 FTA체결로 한국이 동북아에서 세계와 교역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점에 관심을 나타냈다.

또 무주에 생산시설을 설립해 액티비아를 출시하고 있는 다논의 존 데이비스 아태지역 총괄사장도 “인삼이나 김치 등 한국 특산품과 연계한 제품개발에 관심이 있다”며 R&D중심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이전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베이커리 첨가



▲ 프랑스 다논(사진 위)과 봉그랑(사진 아래) 방문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분석 ③

고부가 식품 수출거점기지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수출 검역·검사 통합사무소를 통해 식품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이를 위해 관세청, 농식품검역검사본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으로 구성된 수출 검역·검사 통합사무소를 설치, 식품수출 거점기지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입주기업들은 이를 통해 수출정보 제공에서 바이어 상담에 이르기까지 일관지원시스템을 지원받고,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종합보세구역에 지정하는 등 식품기업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입주기업의 원료조달, 제품판매, 수출입 물류 등을 전담할 물류종합처리 회사도 선정, 운영할 예정이다.

산지 농가와 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도 가능한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수협을 중심으로 원료조달매칭시스템을 구축, 입주기업에게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02-500-1922) 

물 제조회사(B2B중심 사업)인 퓨라토스 역시 한국내 신규 공장증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원F&B와 투자협약 체결

이처럼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동원F&B가 지난 9월 CJ제일제당에 이어 두 번째로 투자유치사를 전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동원F&B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식품 제조공장 및 연구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다양한 기업, 연구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동원F&B를 더 큰 식품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도 이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과 투자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국내외적 기대감에 힘입어 농식품부는 이번 투자가 입주기업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활발한 네트워크와 혁신을 통해 국내 식품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외 식품클러스터 성공요인 분석

③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클러스터

전문화된 기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력과 제품 차별화 경쟁이 벌어지는 클러스터. 에밀리아-로마냐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클러스터가 있었기 때문이다. 에밀리아-로마냐는 이탈리아 북동부지역 포강 유역 평야에 위치해 있다.

과거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못 사는 곳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인구 400만명에 기업이 40만개가 넘는다. 파마산치즈, 파르마햄, 발사

기업간 협력·차별화 경쟁...성장·발전

믹스초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산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수출지향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이 이곳 에밀리아-로마냐의 특징이다. 전문화된 기업들이 함께 모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클러스터. 그 속에서 기업들은 협력과 차별화 경쟁을 벌이며 성장·발전한 것이다.

일례로 파마산치즈의 경우 원료인 우유에서부터 맛과 향을 결정짓는 숙성기간 등 고품질을 지향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을 만든다. 이처럼 지역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식품회사는 그들만의 노하우로 가공한다. 유럽연합은 이들 파마산치즈, 햄 등 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02-500-1922) 

한국식품 세계진출 가능성 충분

SIAL박람회, 40여개업체 상담...관람객들 장류제품에 관심



지난달 21~25일 파리에서 '2012 파리 식품 박람회(SIAL2012)'가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40여개 업체가 이번 박람회에 참가해서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소스를 사용하는 유럽 식생활과 잘 어울리고 건강에도 유익한 장류제품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미래 세계 식품시장 트렌드 예측

이번 박람회에서는 최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식품 트렌드가 제시돼 미래 세계 식품시장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SIAL Innovation(신개발혁신상품)' 상위 18개 상품에 대해서는 그랑프리상이 수여됐으며 수상 제품들은 편의성, 실용성, 감각적 디자인, 맛, 안전성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편리함과 건강'을 갖춘 소포장 제품이 주류를 이뤘다는 점도 이색적이라 평이다.

'폭넓은 활용도와 독창적인 포장'으로 그랑프리상을 수상한 스페인의 'Mini Oliva'는 100% 올리브오일을 포도식초

등으로 조미한 후 올리브 모양의 1회용 비닐팩에 소포장해 사용자가 용도나 맛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랑프리상을 수상한 한국의 '밤부스란트(Bambusland)'사 역시 담양에서 재배한 대나무 잎을 수확해 만든 '유기농대나무잎차'로 무카페인, 유럽 유기농인증으로 '웰빙, 친환경' 요소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스프레드 형태의 액상소금, 단시간에 조리할 수 있는 프렌치파이 키트, 조리 후 음식냄새를 없애는 향기스프레이, 오메가3와 단백질이 풍부한 마(麻)씨를 가공한 스낵, 붓으로 음식접시를 장식할 수 있는 소스, 유기농 쌀을 발효해 만든 디저트, 피라미드 모양의 종이포장에 담긴 유기농요구르트음료, 구슬형태로 만든 발사믹식초, 송로버섯향 견과류, 원재료를 냉동해 만든 허브차, 독창적인 모양의 아이스크림, 파스타 요리 등에 사용하는 로브스터 오일, 소포장 양념 올리브 오일, 로열젤리를 함유한 타르트, 에피



▲ SIAL Innovation 그랑프리상을 수상한 'Mini Oliva(스페인)' (사진 위)와 '유기농대나무잎차(한국)' (사진 왼쪽)

타이저로 먹을 수 있는 야채무스 등이 그랑프리상을 수상했다.

식품안전성 강조

이번 박람회에서도 식품의 안전성이 강조됐다. 중국은 참가국 중 네 번째로 큰 규모로 전시관을 운영했으나 방문객이 적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세계 식품시장이 건강에 유익한 고품질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 같은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SIAL박람회 관련 상세 정보는 'www.sialpari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500-1825)

전통식품 명인 신규 6명 지정

감홍로주 제조·가공보유자 이기숙 씨 등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거쳐 '감홍로주' 제조·가공보유자 이기숙 씨(여, 55세, 경기 파주) 등 6명을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9일 지정서를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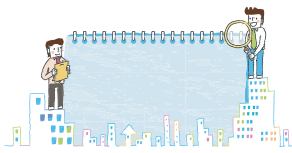
이번에 지정된 식품명인은 '감홍로주' 제조·가공보유자 이기숙 씨, '홍삼' 명인 송화

수 씨(남, 79세, 전북 진안), '대맥장' 명인 성명례 씨(여, 64세, 경북 청송), '잡쌀유과' 명인 김현의 씨(여, 56세, 경남 의령), '초의차·초의병차' 명인 전종석 씨(남, 64세, 전남 무안), '죽력고' 명인 송명섭 씨(남, 53세, 전북 정읍)이다.

식품명인제도는 1994년부터 운영돼 이번

에 지정된 6명을 포함, 총 49명이 명인 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43명(사망 6명)이 활동 중이다. 식품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분야 최고 명인이라는 명예와 함께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제품에 대해 명인 표지와 표시사항을 부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 양재하나로마트에 명인관을 설치하는 등 명인제품 판로를 확대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 진출도 지원하는 등 식품명인제도 활성화를 적극적 추진할 계획이다. (02-500-1950)



11월 주요행사 캘린더 CALENDAR

✓ 햅쌀 막걸리 출시

- 일시 및 장소 : 10. 25~12월말 / 전국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 15,000여 점포
- 주요내용 : 햅쌀 막걸리 출시 제품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태그 나 스티커 부착

✓ 한식조리 단기 교육과정 수료식

- 스태프 양성과정 : 경희대(11.13, 20명), 우송대(11.13, 23명), 숙명여대(12.5, 18명)
-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과정 : 핀외식연구소(11.6, 21명), 대림대(11.20, 21명)

✓ 소금 직판 할인행사

- 일시 및 장소 : 11월 중순 / 농협하나로클럽(양재, 성남, 수원)
- 주요내용 : 소금 직판 할인 행사, 국산 천일염 확인 방법 시연 등 홍보

✓ 전통 장류를 활용한 요리 컨테스트

- 일시 및 장소 : 11. 14(수)~16(금) / 중국 상해
- 주요내용 : 전통 장류를 활용한 요리 컨테스트 대회, 장류 홍보관 운영(장류협회 주관)

✓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연·관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11.14(수)~15(목) / 담양리조트
- 주요내용 : 김치산업진흥을 위한 연구 및 정책방향 모색

✓ 중국 상해 식품박람회 클러스터 투자유치관 운영

- 일시 및 장소 : 11. 14(수)~16(금) / 중국 상해

2012 녹색식생활교육 지역 순회체험관 운영

2012 녹색식생활교육박람회(6.22~24) 우수 콘텐츠 활용, 전국 단위 순회 체험관 운영으로 녹색식생활 지역확산 도모(10~12월)

- 10월** 부산광역시(10.25~28, 부산벡스코), 인천광역시(10.26~28, 정서진 아래뱃길 선착장 앞), 강원도(10.17~21, 횡성 섬강둔치)
- 11월** 울산광역시(11.1~3, 울산 북구청), 충북(11월 초, 미정), 충남(11월 중, 미정)
- 12월** 경기도(12.10~21(예정), 경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 친환경식생활교육관)

공모사업 안내

✓ 수출 홍보대사(카라) 스티커 사용 수출업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차) 11.1~8
- ▶신청방법 : <http://album.agrotrade.net/sticker> 접속하여 신청
* 매월 접수 진행

✓ 러시아(모스크바) 항공운송 지원 희망업체 접수

- ▶신청기간 : (1차) 11.1~16 * 1차접수 이후 수시접수
- ▶신청방법 : 관련서류 우편 제출
(접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http://www.kati.net>(공지사항) 참조

-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관 운영, 기업 방문

✓ 한식조리 특성화학교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11.15(목)~16(금) / 수원과학대
- 주요내용 : 학교별 사업실적 발표 및 발전방안 토론

✓ 김장시장 개설·운영

- 일시 및 장소 : 11월 중순~12월 중순 / 전국 100여 개소
(자세한 정보는 www.kamis.co.kr 참조)
- 주요내용 :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김장재료 직거래

✓ 2012 대한민국 과수산업대전 개최

- 일시 및 장소 : 11.30(금)~12.2(일) / aT센터 제1, 2전시장
- 주요내용 : 개막식(대표과실 선발대회 입상자 시상 등) 대표과실관, 과실브랜드관, 과실홍보관, 가공식품관, 과수산업관 등 운영, 세미나, 과일요리 경연대회 개최 등

✓ 식품산업 정책방향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12.13(목) 14:00~18:00 / 충남대학교
- 주요내용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추진전략 등

✓ 해외 한식당협의체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12.5(수)~12.8(토) /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
- 주요내용 : 협의체사업 추진방향 논의, 국내 우수 기업 현장탐방

월간 식품정책 11월호에는 해외 식품시장 동향, 수산분야 소식을 다루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중국 유제품시장, 파리 SIAL박람회, 부산 국제수산물무역 EXPO기사를 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2-500-1915)